



INCHEON UNITED MATCH SCHEDULE

01R	02월 25일(토) 20:30	2	서울 : 인천	1	서울월드컵
02R	03월 04일(토) 14:00	3	인천 : 대전	3	인천축구전용
03R	03월 12일(일) 16:30	1	인천 : 제주	0	인천축구전용
04R	03월 18일(토) 14:00	5	광주 : 인천	0	광주축구전용
05R	04월 01일(토) 16:30	0	인천 : 대구	0	인천축구전용
06R	04월 09일(일) 16:30	2	전북 : 인천	0	전주월드컵
07R	04월 16일(일) 14:00	0	강원 : 인천	2	춘천송암
08R	04월 22일(토) 19:00	2	인천 : 수원FC	2	인천축구전용
09R	04월 25일(화) 19:30	0	인천 : 울산	1	인천축구전용
10R	04월 30일(일) 15:00	0	포항 : 인천	2	포항스틸야드
11R	05월 05일(금) 16:30	0	인천 : 수원	1	인천축구전용
12R	05월 10일(수) 19:30	2	제주 : 인천	0	제주월드컵
13R	05월 14일(일) 16:30	0	인천 : 전북	0	인천축구전용
14R	05월 20일(토) 16:30	1	인천 : 광주	1	인천축구전용
FA컵	05월 24일(수) 19:00	3	인천 : 경남	0	인천축구전용
15R	05월 27일(토) 19:00	2	대구 : 인천	2	DGB대구은행파크
16R	06월 04일(일) 16:30		대전 : 인천		대전월드컵
17R	06월 07일(수) 19:30		인천 : 서울		인천축구전용
18R	06월 11일(일) 19:00		수원 : 인천		수원월드컵
19R	06월 25일(일) 16:30		인천 : 포항		인천축구전용
FA컵	06월 28일(수) 19:00		인천 : 수원		인천축구전용
20R	07월 02일(일) 20:00		인천 : 강원		인천축구전용
21R	07월 08일(토) 19:00		수원FC : 인천		수원종합
22R	07월 12일(수) 19:00		울산 : 인천		울산문수
23R	07월 16일(일) 20:00		인천 : 대전		인천축구전용
24R	07월 22일(토) 19:30		서울 : 인천		서울월드컵
25R	08월 06일(일) 19:00		전북 : 인천		전주월드컵
26R	08월 13일(일) 19:30		인천 : 대구		인천축구전용
27R	08월 18일(금) 19:30		인천 : 광주		인천축구전용
28R	08월 25일(금) 19:00		수원FC : 인천		수원종합
29R	09월 02일(토) 19:00		인천 : 포항		인천축구전용
30R	09월 16일(토) 14:00		인천 : 제주		인천축구전용
31R	09월 24일(일) 16:30		강원 : 인천		강릉종합
32R	09월 30일(토) 19:00		인천 : 수원		인천축구전용
33R	10월 08일(일) 15:00		울산 : 인천		울산문수

- 상기 경기 일정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AFC 챔피언스리그와 FA컵 일정은 추후 발표 될 예정입니다.
- 변경 된 경기 일정과 경기 관련 소식은 인천유나이티드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vs SEOUL PREVIEW

올 시즌 두 번째 '인경전', 분위기 전환의 분수령이 될 수 있을까

글 = 성의주 UTD기자 (sung.euju.shin@gmail.com)

K리그도 어느덧 전반기를 마무리했다. 초반부터 치열했던 정규리그도 절반이 지났다. 인천의 6월 첫 홈경기 상대는 '숙명의 라이벌' FC서울이다. 2월 개막전에서 만났던 서울을 홈으로 불러들여 정규리그 후반기를 맞이한다.

인천과 서울의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 특히 작년과 비교해 본다면 더욱 그렇다. 지난 시즌 창단 최초 AFC 챔피언스리그에 진출하며 올 시즌 더 높은 곳을 바라봤던 인천은 기대와 달리 하위권을 오랜 시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반대로 지난 시즌 하위권을 맴돌며 최종 9위로 마무리했던 서울은 올 시즌 안정적으로 상위권에 머물고 있다.

양 팀의 현재 분위기를 가른 것은 결국 '득점'이다. 실점은 비슷하지만 득점에 크게 차이를 보인다. 서울은 리그에서 1위 울산과 최다 득점 1, 2위를 다투고 있지만, 인천은 1경기 평균 1골도 채 되지 않은 득점력으로 고전하고 있다. 서울에서는 특히 좋은 폼을 보이는 나상호를 주목해야 한다. 나상호는 6경기에서 6골을 기록하며 4월 이달의 선수로 뽑히기도 했을 만큼 현재 리그에서 가장 위협적인 공격수다. 득점 선두 경쟁을 펼치고 있는 나상호에 대한 확실한 대비가 필요하다.

인천에서는 천성훈이 4월 마지막 3경기에서 3득점을 기록하며 득점의 해결사로 떠오르는듯했지만, 5월 첫 경기 출전 직전 부상을 당하며 결장하게 되어 여러모로 아쉬움을 남겼다. 천성훈의 복귀가 간절하지만, 한 명에게만 의존할 수도 없는 것이 사실이다. 득점에 대한 명확한 실마리를 찾는 것이 시급하다. 다행히 인천은 FA컵과 대구 원정 리그 경기를 통해 옴포쿠, 홍시후(2경기 2골), 정동윤, 신진호가 득점포를 터트리며 자신감을 회복했다.

현재 상황이 인천에게 좋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라이벌은 라이벌. 분위기와 별개로 인천은 서울을 홈으로 불러들여 귀중한 승리와 함께 팀의 하위권 탈출까지 노려보고자 한다. 최근 10경기 전적에서 인천은 서울을 5승 3무 2패로 앞서고 있다. 홈경기 전적도 좋다. 서울과의 홈경기에서는 최근 10경기에서 6승 1무 3패를 거뒀다. 특히 송시우는 그중 3경기에서 득점하며 3경기 모두 팀을 승리로 이끌기도 했다.

후반기 시작을 알리는 '인경더비', 인천은 해결해야 할 숙제가 많다. 부담스럽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잘 풀어낸다면 기회가 될 수 있다. 위기의 인천이 해답을 찾고 상승의 흐름을 탈 수 있을지 기대가 모이고 있다.



vs POHANG PREVIEW

'매번 어려웠던' 포항, 지난 승리의 기억 되살린다

글 = 성의주 UTD기자 (sung.euju.shin@gmail.com)

인천의 6월 마지막 경기 상대는 포항스틸러스다. 쉬운 상대 하나 없는 것이 K리그의 운명이지만 유독 힘든 상대를 만날 때 빼놓을 수 없는 상대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번은 조금 다르다. 올 시즌 이미 승리의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인천은 10라운드, 포항과의 올 시즌 첫 맞대결에서 2-0 승리를 거뒀다. 이는 포항에게는 유독 쓰린 경기였다. 포항의 올 시즌 무패 기록을 깬 경기였기 때문이다. 압도적인 성적으로 1위를 달리고 있던 울산마저 1패가 있었으나, 포항은 패배 한번 없이 시즌을 치르고 있었다. 포항은 이후 다음 경기에서도 패배하며 연패를 기록하게 되었다. 포항으로서는 뼈아픈 일이었다. 하지만 단 한 번의 승리로 포항을 만만하게 볼 수는 없다. 포항은 매번 이기는 경기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김기동 감독의 전술과 선수들의 전술 수행 능력이 더해지며 '지지 않는' 경기를 치러왔다. 1위 울산을 제외하면 가장 적은 패배를 기록한 팀이기도 하다. '패배'를 모르는 팀은 무서울 수밖에 없다.

지난 시즌 좋은 분위기를 달리며 최종 4위로 시즌을 마친 인천이었지만, 포항과는 4번을 만나 한차례도 이기지도 못했다. 올 시즌 첫 맞대결에서의 승리가 더욱 소중했던 이유다. 이런 기록에서 알 수 있듯 인천은 포항과의 상대 전적에서 열세다. 통산 전적은 16승 19무 25패며, 최근 10경기 전적은 조금 낫긴 하지만 2승 5무 3패로 이 역시 열세다.

포항은 지난 시즌에 이어 올 시즌에도 좋은 성적을 만들어내며 강팀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이적생들의 활약이 눈에 띈다. 대구FC로의 임

대를 통해 K리그 무대를 접해 포항으로 완전 이적을 한 제카는 특유의 연계 능력을 발휘하며 도움 기록에서 리그 선두권을 차지하고 있다. FC안양에서 이적해온 백성동은 본인의 첫 K리그 1 무대라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의 활약을 보여주고 있다. 임대 영입을 통해 포항에 합류한 수비형 미드필더 오베르단 역시 중원에서 적극적이고 희생적인 플레이로 팀의 구심점이 되어주고 있다.

이외에도 기존 멤버인 고영준과 이호재, 이승모 등도 좋은 활약을 보여주며 선수 간 높은 시너지를 만들어내고 있다. 전술을 비롯해 선수 개개인의 수행 능력도 좋은 만큼 결코 방심해서는 안 된다. 인천은 이처럼 어려운 상대인 포항에게 승리를 거두며 6월을 웃음으로 마무리하고자 한다.





인천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천 대건고 3인방

글 = 성의주 UTD기자 (sung.euju.shin@gmail.com)

이전부터 유소년 팀의 중요성은 모두가 알고 있었으나 최근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U-22 제도로 인한 어린 선수들의 출전 기회 확대, 준프로 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유망주 선수들의 기회 마련 등이 그 이유다. 어린 나이에 프로 출전 경험을 쌓은 선수는 이전보다 더욱 이른 나이에 '많은 경험'을 얻을 수 있으며, 이는 곧 프로팀의 미래이자 대한민국의 미래로 이어진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유망주를 찾을 수 있는 유소년 팀이 중요한 이유다.

유소년에 대한 팬들의 관심을 충족하고, 더욱 다양한 유소년 선수들을 소개하기 위해 인천유나이티드의 공식 매거진 <THE UNITED>에서는 인천의 유소년 선수들을 소개하는 콘텐츠를 진행하고자 한다. 첫 번째 주인공은 인천 U-18 인천 대건고등학교의 2학년 3인방, 황신연, 이재환, 황지성이다.

황신연은 리그에서 최고의 활약을 펼치고 있는 선수 중 한 명이다. 4월은 특히 리그 경기가 많은 있던 달이었다. 전반기 리그 11경기 중 절반에 해당하는 5경기가 4월에 치러졌다. 그 5경기에서 5골 2도움을 기록한 선수가 바로 황신연이다. 왕포워드인 황신연은 아직 성장하고 있는 180cm의 신장과 양발 슈팅에 모두 능하다는 점이 특히 눈에여겨볼 요소다. 개인 기술도 뛰어나지만 경기 중 수비에도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등 투지 있는 플레이를 보여준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다.

이재환과 황지성은 2023 AFC U-17 아시안컵 최종 명단에 발탁된, 이른바 '대표팀 멤버'다. 이재환은 190cm라는 독보적인 신장의 공격수로, 인천 광성중 시절부터 많은 관심을 받은 스트라이커 유망주다. 장신 공격수가 가진 특유의 공중볼 경합 능력은 물론, 강한 슈팅과 드리블 능력이 눈에 띈다. 세트피스 상황이나 상대 수비의 빌드업 상황에서 적극적인 압박을 펼치기도 하며, 드리블 능력 또한 장점 중 하나로 꼽힌다. 이번 아시안컵 본선 대비 태국 전지훈련 태국과의 연습경기에서는 후반에 투입되어 멀티골을 터트리는 좋은 활약을 펼쳤다.

U-16 대표팀부터 꾸준히 소집되었던 황지성은 해당 연령대의 핵심 풀백으로 자리 잡아 꾸준히 출전 기회를 얻고 있다. 지난해에 개최된 '2023 AFC U-17 아시안컵 예선'에서는 득점을 기록하기도 하며 팀의 본선 진출에 한 몫을 보태기도 했다. 많은 활동량과 날카로운 킥 능력이 장점인 황지성은 인천 대건고에서는 주로 윙어로 출전하며 측면에서의 공격 능력도 키우고 있다. 실제로 올 시즌 인천 대건고의 리그 개막전에서부터 득점을 터트린 바 있다.

선수들의 활약 속에 현재 리그에서 2위를 기록하고 있는 인천 대건고는 6월에 남은 리그 두 경기를 마지막으로 전반기 리그를 마치고 7월 하순 '2023 K리그 유스 챔피언십'에 참가할 예정이다.



전역 이후 성숙해진 문지환, “인천이 위기에서 강했던 이유는 팬들의 존재”

글 = 주대은 UTD기자 (ju_dann@naver.com)

모든 게 바뀌었다. '생존왕', '잔류왕'이라는 달갑지 않은 별명이 붙을 정도로 강등권에서 헤매던 소속 팀은 아시아 무대에 진출했다.

훈련복을 직접 세탁하고 챙기는 게 당연한 시절이 있었지만, 이제는 멋진 클럽하우스에서 축구에만 전념할 수 있다.

임지가 줄어 벤치에 앉아있던 시간이 지나고 팀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됐다. 고작 1년 반 사이에 문지환에게 생긴 변화다.

UTD기자단이 문지환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군대에서 1년 6개월의 시간을 통해 성숙해질 수 있었다”

문지환은 지난 2021년 6월 김천 상무에 입대했다. 18개월 군 생활 끝에 2022년 겨울 전역했다. 많은 남성이 그렇듯, 처음엔 문지환도 군대에서 보내는 시간이 아까웠다. 시간이 지나고 돌아해보니 김천상무에서 18개월은 문지환을 성장시켰다. “솔직히 처음엔 군대 가는 시간 너무 아까웠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을 통해 축구적으로나 인간적으로 성숙해질 수 있었다.”

“상무에서는 국가대표 선수가 많으면 7명까지 차출이 됐다. 그 선수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많이 배우고 느꼈다. 나도 나름 몸 관리를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더 예민하게 관리하는 선수들이 많더라. 확실히 좋은 선수들은 다르다는 게 느껴졌다. 작은 것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는 자세와 태도들을 보고 배웠다.”

뭐든지 배우려는 마음은 문지환을 정신적으로 크게 성장시켰다. 조성환 감독도 문지환의 발전을 인정했다. 조성환 감독은 시즌 개막전을 앞두고 열린 기자회견에서 문지환이 “군 복무하면서 정신적으로 성숙해졌다”고 말했다.

“군대 가기 전에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쉽게 생각했다. 군대에 있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다. 내가 전역하면 한국 나이로 서른이더라. 나도 이제 팀에서 더 이상 어린 나이가 아니다. 중간에서 형들을 잘サポート하고, 동생들을 잘 이끌어 가야 하는 입장이다. 그래서 성숙해지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 감독님이 좋게 봐주신 것 같다.”



“동계 훈련을 통해 내 태도와 자세 바꾸려고 노력했다”

문지환이 김천상무에 소속된 기간 인천도 크게 성장했다. 문지환에게 입대하기 전과 전역 이후 인천의 차이점에 대해 물었다. “첫 번째로는 인프라가 정말 좋아졌다. 내가 처음에 인천에 왔을 때는 훈련 때 입을 옷을 집에 가져가서 직접 세탁하고 다음 날 챙겨 나

왔다. 적절한 첫해에는 ‘이게 맞나’라고 생각했다. 지금은 다르다. 클럽하우스도 완공됐고, 훌륭한 웨이트 시설도 생겼다. 선수들이 축구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

“선수단도 마찬가지다. 올 시즌 시작하기 직전 많은 축구계 관계자들이 우리를 4강 후보로 둔 이유는 좋은 선수단 구성이라고 생각한다. 자체 경기를 해도 누가 주전이고, 누가 비주전인지 모를 만큼 치열하다.”

선수단이 좋아진 건 긍정적이었지만 문지환에게는 그리 달갑지 않은 않았다. 신진호와 이명주를 포함해 K리그에서 잔뼈가 굵고 능력 있는 미드필더가 팀에 여럿 있었다. 살아남기 위해선 경쟁이 불가피했고, 동계 훈련에서 인정받는 것이 우선이었다. “동계 훈련을 통해 훈련하는 태도나 자세들을 바꾸려고 많이 노력했다. 그래서 감독님이 성숙해졌다고 하시는 것 같다.”

“감독님, 구단, 팬들한테 한번 보여주고 싶었다. 올해는 내가 경기에 나가기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나 자신도 날 의심한 적도 분명히 있었다. 하지만 하면 할수록 자신감이 생겼다. 어느 순간에는 내가 꼭 필요한 순간이 올 거라고 생각했다. 처음엔 걱정만, 설렘 반으로 시작했던 전지훈련이 마무리되고, 시즌을 시작하면서 설렘이 더 커졌다.”

시즌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에피소드도 있었다. 입대 전 문지환은 인천에서 등번호 4번을 사용했지만, 전역 이후 등번호가 6번으로 바뀌었다. “난 사실 등번호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사실 에피소드가 하나 있다. (오) 반석이형이 프로 생활하면서 꼭 4번을 달았다. 그러다가 나한테 등번호를 양보하셨다. 그런데 시즌을 앞둔 어느 날 반석이형한테 카톡이 왔다. 반석이형 가족분들이 반석이형의 마지막 4번 셔츠를 보고 싶어 하신다고, 그래서 미안하게 됐다고 하셨다.”

“내가 반석이형을 좋아하기도 하고, 오히려 그게 맞다고 생각했다. 난 4번이 한 번도 내 번호라고 생각한 적도 없다. 편하게 하셔도 괜찮다고 답장했다. 그리고 빈번호를 보니 그게 6번이더라. 마침 내가 김천 상무에서 6번을 단 적도 있어서 자연스럽게 번호가 바뀌었다.”



“경기에 나서지 못하는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한다”

성실히 동계 훈련을 소화했지만, 막상 시즌이 시작되니 문지환에게 주어진 자리는 교체 명단이었다. 어려운 시간이 될 수도 있었지만, 오히려 문지환은 그 시간을 재정비에 사용했다. “시즌 초 경기에 나서지 못할 때는 나도 선수이기 때문에 아쉬움은 있었다. 기회가 오면 내가 가진 걸 명확하게 보여준다는 마음으로 준비했다.”

“특히 신체적으로 많이 준비했다. 솔직히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 내가 주전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다만 다른 미드필더들에 비해 내 장점은 좀 더 뚜렷하다고 생각했다. 난 볼 획득, 수비, 공중볼 경합 같은 부분에서 장점이 있다.”

“동료 미드필더의 장점도 흡수하려고 했다. (이)동수 같은 경우 활동량이 많고, 여름이형 같은 경우 킥이 좋다. (신)진호 형은 언제나 공격적인 패스를 시도한다. (이)명주형은 항상 최고의 선택을 한다. 우리는 경쟁하는 관계이지만, 동시에 공존하는 관계기도 하다. 다른 선수들의 좋은 점을 배우려고 한다.”

인내의 시간 끝에 문지환이 기회를 받았다. 이명주가 부상으로 팀을 이탈하며 그 자리를 문지환이 차지했다. 간절하게 기다린 만큼 경기에 임하는 자세도 어느 때보다 진지했다. “경기를 못 나가는 선수는 숨이 차올라서 힘든 것도 아니고, 피로도가 높아서 힘든 게 아니다. 정말 경기에 나가고 싶으면 선택받지 못한 그 마음을 너무 잘 안다. 그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한다.”

“또 항상 경기 전 생각하는 게 있다. 우리 선수단은 총 38명이다. 그중 18명이 선택을 받고, 11명이 경기에 나간다. 당연히 책임감이 필요하다. 항상 책임감을 더 새기고 경기장에 들어간다.”

주전을 차지하면서 경사도 생겼다. 문지환은 8라운드 수원FC와 경기에서 K리그 100경기 출전을 달성했다. “난 매 시즌 크고 작은 부상이 있어서 동기들보다 많이 늦었다. 아쉽지

만 이번 100경기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다. 100경기를 인천에서 맞이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다. 열심히 하다 보면 200경기, 300경기도 가능하다. 또 인천 소속으로 100경기를 채우고 싶은 욕심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경기 한 경기 소중하게 보내고 있다.”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선수라는 걸 표현했다”

좋은 일은 몰랐듯이 찾아왔다. 문지환은 10라운드 포항 원정 경기에서 인천 복귀 골이자, 결승 골을 넣으며 활약했다. “내가 막 공격적으로 특화된 선수는 아니다. 전반전에 상대 한 명이 퇴장당해서 생각보다 미드필드 공간이 많이 열렸다. 그래서 슈팅을 때렸는데 정말 치는 순간 ‘너무 잘 맞았다’는 생각에 소름이 돋았다. 그게 골로 연결돼서 좋았고, 승리해서 더 기뻐다.”

“시즌 시작 전에 나 자신에게 의구심이 있었고 팬들도 나한테 의구심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 골로 인해 내가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선수라는 걸 말로 아닌 경기장에서 표현할 수 있어서 좋았다. 팬들도 많이 좋아해 주셔서 감사했다.”

인천 소속으로 오랜만에 득점한 기쁨 탓이었을까. 득점 이후 세리머니는 다소 과격했다(?). “내가 올해 인천에서 살아있음을 보여주지 못하면 인천과 함께 할 수 없으리라 생각했다.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컸던 만큼 준비도 많이 했다. 내 노력이 결과로 나와서, 나도 모르게 그런 표현을 했다. 앞으로는 어린 팬들도 많기 때문에 자제해야 할 것 같다.(웃음)”

팬들의 눈길을 곧 장면에 있었다. 득점 후 제자리로 돌아오던 문지환은 기술 지역에서 서 있던 조성환 감독과 어깨를 부딪히는 세리머니를 펼쳤다. “사전에 준비했던 것은 전혀 아니다. 반석이형과 (권)한진이형이 ‘감독님이 날 바라보는 눈빛에 애증이 있는 것 같다’고 장난스레 이야기한다. 감독님이 나한테 어떤 기대를 하시고, 무엇을 바라시는지 직접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감독님이 특별히 말씀하지 않으셔도 내가 어

떻게 해야 하는지 너무 잘 알고 있다. 내가 준비했던 과정과 태도들, 내 간절함을 감독님이 알아주신 게 아닌가 한다. 감독님이 인천에서 선수들과 단 한 번도 그런 세리머니를 하지 않았던 걸로 안다. 그동안 내가 느낀 힘든 감정을 공감해 주시는 제스처였던 것 같다.”

최근 문지환의 활약이 뛰어났던 건 분명했지만, 아쉬운 점도 있었다. 바로 카드 관리다. 문지환은 리그 12경기에서 5장의 옐로카드를 받았다. 문지환의 포지션이 싸워주고 경합해야 하는 자리임을 감안하더라도 카드 관리가 원활히 되지 않고 있다.

“팀마다 누구 한 명 정도는 싸워줘야 한다. 상대 팀이 편하게 공격하게 놔두면 우리가 지는 것은 볼 보듯 뻔한 일이다. 누구 한명은 반칙해서라도 상대를 괴롭혀야 한다. 우리 팀 공격수들도 상대에게 많은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 그래도 경기장에서 선을 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내 포지션도 그렇고 내가 해야 하는 역할이다. 옐로카드가 벌써 5개인 것은 아쉽다. 그러나 시즌이 끝날 때까지 내가 할 일은 명확하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상대와 싸우고 우리 팀에 활력소가 되는 선수가 되고 싶다.”



“ACL을 생각하는 것보다 당장 리그에 집중해야 한다”

이미 문지환에게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또 다른 새로운 무대가 문지환을 기다리고 있다. 올해 하반기 인천은 구단 역사상 처음으로 AFC 챔피언스리그(ACL)에 출전한다. 문지환도 선수 생활 중 처음으로 국제 무대를 밟게 됐다.

“설레고 재밌을 것 같다. 사실 아직 와 닿진 않는다. 이제 점점 더 실감하지 않을까. ACL 무대는 선수 생활하면서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다. 나는 작년에 선수들이 고생한 것에 대한 혜택을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더 잘 준비하려고 한다.”

“또한 지금 ACL을 생각하는 것보다 당장 앞에 있는 리그 먼저 집중해야 한다. 멀리 있

는 것을 쫓기보다는 눈 앞에 있는 경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 아직까진 리그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문지환이 리그 경기에 더 무게를 두는 이유는 명확했다. 인천은 올해 기대만큼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 그래도 문지환은 희망을 놓지 않았다. “팬들도 그렇고, 많은 축구 관계자가 4강 이상을 생각했다. 감독님을 중심으로 선수단은 모난 선수도 없이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많은 사람이 예상했던 4강은 1라운드 종료, 2라운드 종료 후 순위가 아니지 않나. 우리는 아직 진행형이라고 생각한다. 승점 차이가 크게 나는 것도 아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리그는 종간도 지나지 않았다. 난 충분히 자신 있고, 우리가 좋은 시즌을 보낼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문지환이 팬들에게 전하는 메시지

인터뷰가 끝날 무렵 문지환에게 팬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냐고 물었다. “19년 겨울에 인천으로 이적했다. 당시 여러 팀에 갈 수 있었던 상황이었지만 인천을 택했다. 이유는 팬들의 열기였다. 인천이 매 시즌 쉬운 순간이 없었다는 걸 알고 있고, 팬들이 마음 아팠던 것도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인천이 위기에서 강했던 이유는 팬들이 선수한테 큰 그늘막이 됐기 때문이다.”

“우리가 질타받아야 할 상황이면 질타를 받는 게 맞다. 그게 축구선수의 숙명이다. 경기장에 아무도 없는 것보다 차라리 많은 분께 질타받는 것이 낫다. 지난 전북전, 16000명의 팬이 오셨는데 결과를 못 냈다는 거에 대해서 아쉽지만, 우리 선수들 모두 팬들을 보면서 힘을 낸다.

“지금 우리에게 대한 아쉬움이 있고, 기대도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아쉬움은 우리가 노력해서 기대감으로 바꿔드릴 수 있다. 자신 있다. 팬들도 우리에게 힘을 실어주시면 좋겠다. 조심스럽게 부탁드리고 싶은 건, 감독님을 비롯한 선수단에 많은 힘을 보태 달라. 꼭 보답하겠다.”



INCHEON UNITED
ROOKIE INTERVIEW

준비된 GK 민성준, 경기장에서 보여드리고 싶은 것이 아직 많다

글 = 박범근 UTD기자 (keu0617@naver.com)

‘준비된 자만이 기회를 잡는다’

지난 한 달, 민성준을 설명하는 가장 적절한 문장이다. 김동현, 이태희에 이어 인천의 세 번째 골키퍼로 2023시즌을 시작했던 민성준은 두 형이 부침을 겪자 출전 기회를 잡았다.

민성준은 자신에게 찾아온 기회를 잡아 인천의 새 주전 골키퍼로 도약했다. 준비된 자 민성준이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UTD기자단은 서서히 입지를 넓혀가고 있는 민성준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민성준, 꿈에 한 발자국 다가갔다

민성준에게 4월은 꿈과 가까워진 한 달이었다. 민성준은 4월 16일 리그 7라운드 강원FC 원정에서 올 시즌 첫 번째 경기에 나섰다. 이를 시작으로 민성준은 5경기 연속 선발로 뛰며 데뷔 이후 처음으로 연속 경기 출전을 이뤄냈다. 민성준은 “매 경기가 소중했고, 영광스러웠다. 인천에서 경기를 뛰는 것은 어렸을 때부터 바라던 순간이었다. 스스로 준비를 많이 했다. 팀이 반등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해 아쉽다. 내가 뛴 경기에서 2승을 했지만, 패배도 두 번 있어서 마냥 만족스럽지는 않다. 다음에 또 기회가 생기면, 내 경기력과 팀 성적을 동시에 가져올 수 있도록 준비 할 것이다”라고 꾸준히 경기에 나선 소감을 전했다.

민성준은 자신이 뛴 5경기를 돌아봤다. 민성준은 “부족한 점이 많았다. 그렇지만, 그것들을 하나 하나 집어내기보다는 지금은 팀 승리를 우선시하면서 동시에 내 경기력도 올릴 수 있게끔 노력하지는 생각밖에 없다. 그래도 강원전과 포항전에 무실점으로 팀 승리에 조금이나마 기여한 점은 만족스럽다”라고 자신의 경기력을 평가했다.

민성준은 그 5경기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으로는 본인의 시즌 첫 경기였던 7라운드 강원 원정을 선택했다. 민성준은 “지난해 리그 최종전이었던 전북 현대전 이후에 긴 공백기가 있었다. 그 시간에 착실히 준비했다. 언제 기회가 올지 모르니 준비 잘하고 있자는 생각으로 훈련했다. 오랜만에 경기에 나선다고 하더라도 팀에 짐이 되지 않고, 플러스가 되고 싶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민성준은 “강원 원정 경기를 이틀 정도 앞두고 선발 통보를 받았다. 팀 성적이 마냥 좋지 못해서 내심 조만간 기회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긴 했다. 결과적으로 강원전에 무실점했고, 인천에 와서 첫 승을 했기 때문에 그 경기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라고 이야기했다.

인천은 골키퍼 네 명 모두 유스 출신 선수들로 두고 있다. 99년생인 민성준은 그중 셋째다. 위로는 이태희와 김동현, 아래로는 김유성이 있다. 민성준은 경기를 뛴 때마다 인천의 선구배 골키퍼들이 많은 힘이 되었다고 한다. 민성준은 “골키퍼 1명이 아니라 골키퍼진 모두가 같이 된다고 생각한다. 두 형은 나보다 경험이 더 많고, 경기도 더 많이 뛰어서 많은 조언을 해주었다. 나는 형들을 보면서 열심히 배우고 있는 단계다. (김)유성아도 실력이 좋고, 준비도 잘하고 있다. 뱃서 잘 준비해서 좋은 결과로 보답하고 싶다”라고 인천의 선구배 골키퍼에게 감사함을 전했다.



부상에도 희망을 잃지 않는다

꾸준히 경기에 출전하던 민성준에게 악재가 덮쳤다. 바로 부상이다. 민성준은 5월 5일 11라운드 수원삼성전에서 상대 선수와의 충돌로 안면 쪽에 부상을 입었다. 그 탓에 민성준은 현재 경기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민성준은 “눈 밑 안와 부위를 다쳤다. 아직은 회복 중이다(5월 중순 시점). 다행히 정도가 심하지는 않다. 차근차근 단계를 밟으면서 운동에 복귀할 예정이다. 훈련에 복귀하면, 마스크 착용도 염두에 두고 있다. 안전을 위해 서라도 초기에는 착용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부상 정도를 설명했다.

민성준의 부상은 유독 더 안타깝다. 서서히 입지를 넓혀가던 시점에 당했기 때문이다. 민성준은 “경기를 계속 뛰는 상황에 부상을 당해서 조금 힘든 것이 사실이었다. 그렇지만, 시즌은 길어서 조금해하지 않으려고 한다. 경기장에서 보여드리고 싶은 것들이 더 많다. 부상 회복을 우선시하면서 차근차근 몸을 만들겠다. 다시 또 좋은 모습을 경기장에서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희망을 전했다.



아시안게임에도 출전하고파

올해 9월에는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열린다. 아시안게임 남자축구 종목은 23세 이하라는 나이 기준이 있다. 그 기준대로라면, 99년생

만 24세 민성준은 대회에 출전할 수 없다. 그러나 이번 대회는 다르다. 원래 작년에 개최되기로 한 대회가 1년 연기된 것이기 때문에 올해 아시안게임에는 만 24세, 99년생 선수들도 참가할 수 있다.

극적으로 찾아온 아시안게임 출전 기회에 민성준은 “이번 아시안게임이 나에게 마지막 연령별 대표팀 기회다. 그래서 출전하고자 하는 의지가 상당하다. 대표팀이라는 위대한 자리에 가려면 소속팀에서의 활약이 먼저다. 인천에서 좋은 활약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그 활약을 인정받아서 아시안게임 대표팀 발탁까지 이룰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행복할 수 없을 것 같다”라고 자기 생각을 솔직하게 전했다.

민성준은 5월 15일부터 3일간 진행된 아시안 게임 대표팀 소집에도 다녀왔다. 민성준은 “부상으로 훈련은 하지 못했다. 팀 훈련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운동장 밖에서 지켜보고 왔다. 팀 미팅에 참석해서 대표팀이 대회를 준비하는 방법도 배우고 왔다”라고 아시안게임 대표팀 소집 훈련에 참가한 소감을 이야기했다.

민성준에게 이번 시즌 목표를 물었다. 민성준은 “작년에 팀이 좋은 성과를 내서 팬들의 기대치가 높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 기대에 보답할 수 있을 만큼 더 높은 위치로 올라가는 것이 최우선 목표다. 개인적으로는 작년보다 더 많이 출전하면서 서서히 발을 내딛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여기에 안주하지 않을 것이다. 더 보여드릴 것이 많다. 나의 모습을 팬분들에게 실컷 뽐낼 수 있을 만큼 많은 경기에 출전하는 것이 개인적인 목표”라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민성준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열성적으로 응원해 주셔서 항상 깊은 감사함이 있다. 팀이 어려울 때나 좋을 때나 항상 함께 해 주셔서 선수들 모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 인천 팬들은 인천의 자랑이다. 지금 팀이 조금 어려운 시기에 있지만, 분명 반등해서 올라갈 것으로 믿는다. 팬분들이 선수들에게 응원을 더 해주신다면, 선수들도 주눅이 들지 않고, 경기력을 올려 좋은 성적으로 보답드릴 수 있을 것이다.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싶다”라고 팬들에게 메시지를 남기며 인터뷰를 마무리했다.



INCHEON UNITED
FOOTBALL CLINIC

프로 선수 훈련장 못지않은 열기, 직접 체험한 성인축구클리닉 솔직 후기

글 = 손지호 UTD기자 (thswlgh50@ajou.ac.kr)

축구를 좋아하는 유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직관 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거나 축구를 직접 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또는 둘 다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 대다수의 축구팬들은 축구를 하는 것과 보는 것을 모두 좋아한다. 자신이 좋아하는 선수를 보고 그의 모습을 따라 하려는 모습들을 종종 볼 수 있다.

아마 모든 아마추어 축구인들의 고민일 것이다. 막상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현실이다. 인천유나이티드는 이런 아마추어 축구인들을 위해 매년 성인축구클리닉을 진행하고 있다. 축구를 좋아하지만 따로 운동할 시간을 마련하기 어려운 사람들 또는 전문적인 축구를 배워보고 싶은 아마추어 축구인들이 프로 구단의 지도자들에게 직접 축구를 배울 수 있는 클래스이다.

성인축구클리닉은 인천유나이티드 송도 축구센터에 진행된다. 도착하자마자 보이는 축구장 모습에 크게 놀랐다. 많은 축구장을 다녔었지만 인천의 상징적인 색깔을 활용한 푸른 잔디가 넓게 펼쳐져 있는 축구장은 굉장한 압권이었다. 충분히 축구장 풍경만으로도 인천 팬들을 설레게 만들기 충분했다.

아무래도 늦은 저녁 시간에 진행되는 클리닉이다 보니 선선하니 운동하기에 좋은 날씨였다. 하나 둘 수강생이 모두 모이고 가벼운 스트레칭과 함께 클리닉이 시작되었다. 운동 시작과 함께 엠프로 들려주는 음악은 운동에 도움이 될 적당한 흥을 불러일으켰다.

이날 참여한 클래스는 송도 화요일반으로 인천유나이티드 U-12 조재환 코치가 클리닉을 진행하고 있었다. 성인축구클리닉은 송도 월요일반부터 목요일반까지 총 4개의 클래스가 있고, 구단 유소년팀을 지도하고 있는 전문 코치가 모든 반을 지도하고 있다. 조재환 코치는 “대체로 요일마다 비슷한 훈련 세션으로 진행되지만 각 반 선생님들이 추구하시는 바에 따라 가르치는 훈련에 조금씩 차이가 있다”라고 말했다.

송도 화요일반은 기본적인 볼 터치, 볼 컨트롤, 드리블을 기반으로 하는 개인 기술을

중점적으로 하는 훈련 세션을 구성해 진행하고 있었다. 이날 수업 주제는 볼 소유 드리블이었다. 첫 번째, 두 번째 훈련 세션은 정해진 구역에서 자유롭게 놓여 있는 장애물들이 수비수라 생각하고 수비수를 마주쳤을 때 안전한 볼 소유 후 수비를 벗겨내는 것을 목표로 진행되었다.

주는 피드백들이 불필요한 동작들을 개선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하지만 기술적인 부분 보다 더 좋았던 점은 복돋아 준다는 점이다. 아마추어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조재환 코치가 클리닉에서 가장 중요하



회슬 소리에 맞춰 발 안쪽과 바깥쪽 모두 활용해 다양한 볼 소유 드리블을 배웠다. 기본 동작에서 동작을 하나씩 추가할 때마다 점차 발이 꼬이고 헛갈리기 시작했다. 허둥지둥 헤매는 사이 이 수업의 가장 큰 장점이 보였다. 코치가 한 명 한 명 드리블을 보면서 바로 피드백을 해주며 동작이 몸에 익을 수 있도록 도왔다. 특히 매번 실전 상황에 맞춰 설명해 주기 때문에 훨씬 이해하기 쉬웠다.

마지막 세션은 배운 내용을 토대로 미니 게임을 진행했다. 짧은 시간 동안 빠른 템포로 진행되는 미니 게임이었다. 평소 축구할 때 하고 싶었던 것들 다 해보라는 코치의 조언에 마음껏 뛰어다닐 수 있었다. 평소엔 눈치 보며 하지 못했던 온갖 기술들을 실패해도 시도했다. 코치님은 오히려 좋은 시도였으며 계속 칭찬해 주셨고 미니 게임 내내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다.

클리닉 시간 동안 상대적으로 기본기가 부족한 아마추어 선수들이 디테일한 부분을 생각하며 축구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특히, 몸동작 하나하나 짚어

게 생각하는 부분이기도 했다. 조재환 코치는 “스스로 볼을 자유자재로 잘 다룰 수 있게끔 알려드려 평소 축구나 풋살을 하실 때 자신감을 가지고 볼을 쉽게 뺏기지 않을 수 있도록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진행 중이다”라고 말했다.

클리닉의 또다른 장점은 오기 편하고 운동하기 좋은 시간대에 진행되는 점이다. 송도축구센터까지 지하철역에서 7분 정도만 걸으면 올 수 있었다. 그리고 20시 이후에 진행되기 때문에 늦게 퇴근하는 직장인에게도 좋고 여름에도 덥지 않게 운동할 수 있다. 클리닉에 같이 참여했던 수강생은 “이제 클리닉을 다닌 지 3개월쯤 됐는데 직장인 근처라 퇴근 후 저녁 운동을 하러 나오게 되었다. 늦은 저녁 시간에 클리닉이 진행돼서 직장인들이 참여하기 좋다고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했다.

끝으로 어떤 사람들에게 클리닉을 추천하는지에 대한 물음에 조재환 코치는 “평소 축구에 관심이 있고, 전문적인 훈련으로 축구를 배우고 싶은 성인은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라고 이야기했다.

IUFC BLUE MARKET

인천축구전용경기장을 찾아주신 팬 여러분이
더욱 쾌적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더 넓은 공간으로 이전 및 리뉴얼 오픈하였습니다!



📍 블루마켓 매장 위치

인천축구전용경기장 GATE-WG7 옆
기존 블루마켓 2층 (구 스카이라운지)

※기존 블루마켓 입구로 입장 후 내부 계단을 통해 2층 블루마켓으로 이동

🕒 운영 시간

경기 시작 2시간 30분 전 ~ 경기 종료 후 30분

※경기 중에는 매장 재정비를 위해 운영하지 않습니다. (하프타임 매장 이용 가능)

www.incheonutdmarket.com

온라인 블루마켓은 365일 OPEN

📷 @incheonutdmarket

TALK @IUFC 블루마켓

인천광역시립박물관
Incheon Metropolitan City Museum

인천유나이티드 프로축구단
INCHEON UNITED F.C.

iiii



다시, 비상

인천유나이티드 F.C.
2003  2023

2023. 4. 4. ^{Tue} - 6. 18. ^{Sun} 인천광역시립박물관 기획전시실